

舌診의 歷史에 관한 研究(I)

朴鍾琪·尹暢烈*

I. 緒 論

舌診은 韓醫 診斷學中에서 매우 중요한 部分으로 직접 환자의 舌質과 舌苔의 變化를 관찰하여 五臟의 虛實, 六淫의 淺深, 疾病의 輕重, 生死의 豫候등을 구별하므로 일찍부터 역대 의가들 모두는 대단히 舌診을 중시하여 왔다.

舌診은 비록 望舌을 위주로 하지만 廣의적으로 는 미각의 상태를 알아보는 問診과 만져보고, 문질러보고, 닦아보고, 굽어보는 切診을 포함하며 望舌은 舌象의 관찰을 통해 진단을 행하는 望診法 중의 하나이다. 舌象이란 舌質과 舌苔의 色澤과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상을 말한다. 임상적으로 볼 때 舌象의 變化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하지만 요령만 터득하고 있으면 간단한 기준에 의거하여 다양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執簡馭繁) 內容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舌象의 變化가 아무리 다양할 지라도 전체적으로 舌色, 舌形, 舌態 및 苔色, 苔質 등의 몇가지 상황의 조합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단지 이들의 기본 정황 및 임상적 의미만 파악하고 있으면 모든 상황에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가 있다. 舌診은 韓醫學이론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독특한 진단방법이므로 韓醫學의 辨證論治의 理論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타 望診, 聞診, 問診, 切診의 四診을 함께 참고해야만 정확하게 舌診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舌診은 고대에 이용되던 五色진법의 하나로 脈診과 더불어 韓醫學 진단에 있어 중요한 특색중의 하나이며 역대 의가들의 중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韓醫學 진단의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舌診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고대에는 상세하지 못하였고 元代에 이르러 杜清碧이 撰한 《敖氏傷寒金鏡錄》이 舌診의 전문서로서는 효시가 된다. 그러나 이미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문자에 “貞疾舌 於妣庚”이란 기록이 있다¹⁾. 이것은

醫學史上에 있어서 舌을 言及한 최초의 기록이다.

여기서 말하는 疾舌은 舌潰瘍, 舌腫脹 등의 舌體의 病變을 지적한 것으로 물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舌診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상 그 단서를 열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舌診에 대한 理論과 內容을 담고 있는 서적은 黃帝內經이다. 內經에는 60餘條의 설에 관한 內容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專論이 없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후 舌診의 발달에 理論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舌診의 內容은 역사의 전개와 더불어 內容이 풍부해지고 理論적인 틀을 갖추어가면서 진단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저자는 韓醫學 진단법중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인 舌診의 研究에 있어 무엇보다도 舌診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研究하여 斯界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先秦, 兩漢 時代의 舌診

1. 《黃帝內經》이전의 舌診

역사자료의 기재에 의거해보면 舌診이 萌芽한 時氣는 대략 西周時代에 시작하여 戰國時期에 이르러 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西周時期에 국가적으로 이미 醫事組織이 있어 의학에 분과가 나뉘어져 있었고, 病歷의 기재와 醫療考績등의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었다.

《周禮·天官》의 기록에 근거하면 當時에 이미 醫의 政令을 主管하던 醫師가 있었고, 아래에 ‘疾醫’ ‘瘍醫’ ‘食醫’ ‘獸醫’ 등과를 두었는데²⁾, 이는 醫와 巫가 이미 分家되었고 專門的으로 治病을 職業으로 삼는 醫生이 있었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당시의 醫生은 “以五氣 五聲 五色 視其死生 兩之以九竅之變 參之以九臟之動”³⁾하여 疾病을 인식하고 진단하였다. ‘五色’은 望診을 가리키는 것으로 ‘九竅之變’과 연관시켜보면 ‘察舌’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이 時期의 專門的인 醫學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1) 李鳳教編著 韓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6 p.70.

2) 孫詒讓撰 周禮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7 第二冊 pp.315-339.

3) 上揭書 pp.328-330.

著作이 전해내려오지는 않지만 戰國時代에 編纂된 黃帝內經으로 본다면 舌診의 內容이 이미 풍부해졌으며, 상당한 수준의 科學性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診法이 西周이전에 이미 싹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문헌에 근거해 볼 때, 최초의 舌診기록은 扁鵲이 남겨놓은 것이다.

扁鵲의 姓은 秦이고, 名은 越人이며, 號는 盧醫로서 渤海郡鄭人으로 紀元前 5-4世紀에 生存한 中國古代의 著名한 醫學家이다. 그는 內五臟婦兒各科에 精通했으며 針砭熱熨과 湯液 등의 各種 醫療技術을 잘 운용하였고, 望聞問切 등의 診斷知識이 매우 풍부하였다.

司馬遷은 《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 扁鵲을 “方者宗”, “至今天下言脈者 由扁鵲也”⁴⁾라고 說明하였다. 扁鵲은 脈學의 創始人이며 舌診은 그의 이전에 散漫하게 口傳되었으나 扁鵲이 脈學을 研究할 때 舌診의 지식도 이미 把握하였다. 사마천은 그가 능히 “切脈 望色 聽聲 寫形 言病之所在”⁵⁾할 수 있다고 說明하였다. 여기서 切脈 望色の 나열은 扁鵲이 切脈을 研究하는 동시에 望色에 대하여도 또한 經驗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으로, 舌診은 望色の 내에 포함된 一種의 診斷方法이다. 사마천은 《扁鵲倉公列傳》의 太倉公傳 部分에서 이르기를 太倉公은 일찍이 公乘陽慶으로부터 《黃帝內經》의 《脈書》, 《五色診》 등을 전해받았다고 說明하였다. 이후에 班固의 《漢書藝文志》에도 또한 《扁鵲內經》과 《扁鵲外經》의 篇目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최초의 舌診記錄은 扁鵲이 전해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晉代 王淑和가 著述한 《脈經》卷五의 《扁鵲陰陽脈法》과 《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 등편에서 舌診을 “脈代 乍至乍不至大而沈 卽咳 咳卽上氣 上氣甚則肩息 肩息則口舌出血”⁶⁾, “胃脈沈鼓澀, 胃外鼓大 心脈小緊急 皆屬偏枯 男子發左 女子發右 不瘳舌轉可治……”⁷⁾라고 하였다. 이 두가지 기록으로 우리는 扁鵲이 脈診과 舌診을 동시에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偏枯患者가 舌을 움직일 수 있고 言語가 淸晰하면 豫候가 良好하다는 것은 매우 精確한 經驗의 總結인 것이다. 晉代에 사람들은 이미 王淑和의 《脈經》中에서 扁鵲醫論과 有關한 記錄이 믿을 만한 것임을 認定하였다. 따라서 근래에 출판된 《中國醫學

史略》도 王淑和의 脈經이 일찍이 扁鵲 등 名醫와 有關한 文獻을 뽑아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 근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최초의 舌診記錄은 扁鵲이 그의 저작중에 기록한 것이고, 이를 王淑和가 그의 《脈經》에 收錄編纂하여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扁鵲이 가장 먼저 舌診을 운용하고 기록한 醫學家라고 할 수 있다.

2. 《黃帝內經》의 舌診(附難經)

黃帝內經은 韓醫學上 최고의 醫書로서 春秋戰國時期로부터 서한 時期까지의 韓醫學의 理論이 종합되어 있으며 모두 18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周秦時期의 舌診의 經驗과 理論이 총결되어 있어 舌診연구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 속에 舌診에 대한 內容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內經에는 舌에 관하여 60여조의 內容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당히 精確하게 舌의 解剖生理病理를 論述하였고, 舌이 診法에서 갖는 위치와 의의를 精確하게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 《靈樞》는 舌의 生理解剖에 대하여 重點적으로 논하였고, 《素問》은 舌의 病理 診斷意義를 爲主로 논하였다. 예를 들면 《靈樞腸胃》篇에서 “舌重十兩 長七寸 廣二寸半”⁸⁾이라고 하여, 하나의 筋肉器官으로 지적하였다. 《靈樞經脈》에는 “唇舌者 肌肉之本也”라 하여 根部에 舌體의 運動을 지지하는 軟骨이 있어서 隨意的으로 舌體의 運動을 조절하여 언어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靈樞憂患無言》에서는 “舌者 音聲之機也 …… 橫骨者 神氣所使主發舌者也”라고 하였는데, 舌은 “心之官”이면서 脾의 外候로서 滋味를 辨別하는 특수한 생리기능과 食物을 혼합하는 作用이 있고, 食物이 口腔에서 初步的으로 消化되게 한다. 《靈樞脈度》에서는 “心氣通於舌 心則舌能知五味矣 …… 脾氣通於口 脾則口能知五穀矣”라고 하였으며, 全身의 臟腑와 모두 經脈에 의해 直·間接的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靈樞經脈》에서는 “手少陰之別 …… 繫舌本”, “肝者 筋之合也 …… 而脈絡於舌本也”, “足太陰之脈 …… 連舌本 散舌下”, “腎足少陰之脈 …… 入肺中 循喉嚨

5) 上揭書 p.2788.

6) 王淑和 脈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26.

7) 上揭書 pp.252-253.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67.

4)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92 第九冊 p.2794.

挾舌本"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五臟과 舌이 하나 하나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靈樞經筋》에서는 "足太陽之筋 …… 其支者 別入結于舌本", "手少陽之筋 …… 繫舌本"이라고 하였고, 《靈樞營衛生會》에서는 "上焦出於胃上口 …… 上至舌 下足陽明"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六腑中에 膀胱과 三焦와 胃 등도 舌과 관계가 있음을 說明한 것이다. 그 외에 膽, 大腸, 小腸 등의 腑는 그와 表裏가 되는 臟인 肝, 肺, 心 등의 經脈을 通하여 간접적으로 舌과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는 總結하여 지적하기를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竅 …… 其濁氣出於胃 走脣舌而爲味"라고 하였는데, 이는 舌이 辨滋味, 調音聲, 拌食物, 助消化 등의 生理機能이 있는 器官일 뿐 아니라 機體와 더불어 일체를 이루어 臟腑의 外候가 됨을 說明한 것이다. 病理診斷 및 察舌辨證論治方面에서 《素問》에 많은 論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 《素問至真要大論》에 "厥陰司天 風淫所勝 …… 民病胃脘 當心而痛 …… 舌本強", 《素問診要經終論篇》에서는 "厥陰終者 中熱噤乾 善溺心煩 甚則舌卷 卵上縮而終矣"라고 指摘하였다. 診斷方面에서는 《素問風論篇》에 "心風之狀 …… 病甚則言不可快 診在口(舌) 其色赤"이라고 하였고, 辨證論治方面에서는 《素問奇病論篇》에서 "有病口甘者 …… 名曰脾瘕 …… 此肥美之所發也 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 肥者令人內熱 甘者令人中滿 故其氣上溢 轉爲消渴 治之以蘭 除陳氣也"라고 하였다.

다시 內經에 나타난 舌體의 형태와 舌苔 및 豫候판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靈樞寒熱病篇》의 "舌縱涎下 煩惋 取足少陰"

《靈樞寒熱病篇》의 "足太陰氣絕者 則脈不榮肌肉 脣舌者 肌肉之本也 脈不榮則肌肉軟 肌肉軟則舌萎人中滿"

《素問至真要大論》의 "厥陰司天 風淫所勝 則太虛埃昏 雲物以擾 寒生春氣 流水不冰 民病胃脘 當心而痛 上支兩脇 鬲咽不通 飲食不下 舌本強", 《素問脈要精微論》의 "心脈搏堅而長 當病舌卷不能言" 및 《靈樞經脈篇》의 "厥陰者 肝脈也 肝者 筋之合也 筋者 聚於陰器 而脈絡於舌本也 故脈弗榮則筋急 筋急則引舌與卵 故脣青舌卷卵縮 則筋先死" 등에서 言及한 舌縱, 舌萎, 舌本強, 舌卷 등은 모두 舌體의 형태를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비록 나타난 증상을 言及한 것이지만 진단에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舌苔의 색에 관해서도 內經에 역시 言及되어 있

다.

《素問刺熱篇》의 "肺熱病者 先淅然厥 起毫毛惡風寒 舌上黃身熱", 《靈樞刺節真邪篇》의 "陽氣有餘 而陰氣不足 陰氣不足則內熱 陽氣有餘則外熱 …… 舌焦脣槁 腊乾噤燥" 등은 發熱病에 舌苔의 색갈이 黃色 혹은 黑色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說明하고 있는 內容이다.

이외에 《內經》은 舌診으로부터 疾病의 豫候도 추측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예를 들면 《素問熱論》에 "五日 少陰受之 少陰脈貫腎絡於肺 繫舌本 故口燥舌乾而渴 …… 十一日 少陰病衰 渴止不滿 舌乾已而嚔 …… 病日已矣", 《素問大奇論》에 "胃脈沈鼓濇 胃外鼓大 心脈小堅急 皆偏偏枯 男子發左 女子發右 不瘡舌轉 可治 三十日起 其從者瘡三歲起"가 있다. 前一節의 經文은 口燥舌乾하고 渴한 것은 邪熱이 內熾하여 病勢가 張盛한 症候이고, 口渴이 그치고 舌乾도 그치면 邪熱이 衰하고, 津液이 회복되어 병이 곧 나으려는 징조임을 說明한 것이다. 後一節의 經文은 偏枯의 疾病에 言語 淸晰하고 舌이 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자는 病情이 비교적 가벼워 三十日이면 나올 수 있으나, 만일 發音할 수 없고 舌의 움직임도 부드럽지 못하면 病情이 비교적 重한 것으로 三年이나 되어야 점차로 회복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 內經을 계승한 難經에서도 역시 舌診과 관련된 기재가 나타나고 있다. 《難經二十四難》에 "足厥陰氣絕 卽筋縮 引卵與舌卷 …… 故舌卷卵縮 此筋先死"⁹⁾라 하였고, 《難經五十八難》에 "肌寒熱者 肌痛 脣舌槁 無汗"¹⁰⁾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內容을 종합해 볼 때 內經이 저술되었던 당시에 이미 內臟의 生理·病理의 淸況과 氣血의 變化가 舌上에 반영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內經은 舌診學의 理論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후 舌診의 발전에 있어서 所依經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 傷寒論 및 金匱要略의 舌診

漢代는 中國 封建社會가 수립되어 발전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政治, 經濟, 科學 文化 등의 면에서 春秋戰國 時代에 비하여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으며 社會와 科學 文化의 진보로 인하여 직접

9)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62.

10) 上掲書 p.129.

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韓醫學의 성장을 위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舌診의 발전은 주로 《內經》의 理論의 基礎위에서 進一步하여 실천하는 가운데서 얻은 經驗에 의해서 成長하여 充實해지고 向上되어, 이론과 실천을 점점 結合하여 臨床의 辨證施治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舌診의 發展에 대해 공헌한 사람은 주로 華佗와 張仲景이 있는데 그 중에서 張仲景의 貢獻이 더욱 크다. 張仲景(150-219년?)은 이름이 機이며 東漢時代 南郡涅陽(지금의 河南 南陽縣)人이다. 그는 부지런히 옛 가르침을 구하고 여러 장점을 두루 모아서 秦漢時代의 三百餘年の 臨床經驗을 總結하여 시대의 劃을 긋는 醫學著書인 《傷寒雜病論》(지금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되어있다)을 지었다. 또한 그는 臨床經驗을 통하여 韓醫學의 辨證施治理論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舌診은 그의 辨證施治 法則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며 또한 辨證施治의 指標와 根據가 되는 것중의 하나이다.

《傷寒論》과 《金匱要略》中の 舌診과 관련한 記錄은 30餘條이지만 약간의 內容이 重複되므로 실제로는 24種이 된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內容이 《傷寒論》의 “太陽病”篇과 “陽明病”篇中에 散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綜合하면 舌診과 舌苔와 舌味覺의 세 種類인데 《內經》과 比較하여 分類上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病理的인 舌象의 方面에서 質과 量을 막론하고 《內經》에 비하여 명확히 발전한 것이다. 특히 “舌苔”라는 말은 仲景이 처음으로 創始한 것이다. 그 후에 舌苔가 발전하여 舌上苔垢의 通稱이 되어 舌診學中の 하나의 專門用語가 되었다.

舌診의 運用範圍에 있어서 仲景의 舌診은 《內經》에 비해 훨씬 廣範圍하다. 《傷寒論》의 六經中에 四經이 舌診과 關聯되어 있다. 《金匱》에서 論한 雜病方面의 40여개 病種中 7개의 疾病에서 舌診의 辨證을 運用하였다. 또한 그 中 일정한 規則性을 찾을 수 있다. 그는 三陽病과 六腑病變을 診察할 때에 舌苔의 變化를 관찰하는 것을 注視하는 한편 三陰病과 五臟病變中에서는 특히 舌質의 形態의 觀察을 重視하였다. 病을 診斷하는 中에 그는 또한 특히 四診을 함께 參考하는 것을 특히 重視하여 病因을 자세히 살피고 病機를 闡述하고 治療原則을 確定하고 豫後와 轉歸 등을 決定하는데 이르렀다. 예를 들어 《金匱·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篇》에 “病人胸滿 脣痿舌青 口燥 但欲嗽水不欲嚥 無寒熱 脈數大來遲 腹不滿 其人言滿者

爲有瘀血”¹¹⁾이라 하였고 또 예를 들어 《金匱·中風歷節病篇》 第二條에서 “絡脈空虛 賊邪不瀉…… 邪在于絡 肌膚不仁 邪在于經 即重不勝 邪入于腑 即不識人 邪入于臟 舌即難言 口吐涎”¹²⁾이라 하였다.

치료방면에서 《傷寒·陽明論》(221條)에 “陽明病…… 咽燥口乾…… 舌上苔者 梔子豉湯主之”¹³⁾라 하였고 《傷寒·太陽病》(137條)에 “太陽病 重發汗而復下之 不大便五六日 舌上燥而渴…… 從心下至小腹 硬滿而痛 不可近者 大陷胸湯主之”¹⁴⁾라 하였다. 豫後를 판단하는 方面에서는 《傷寒論·太陽病》(129條)에 “臟結 舌上白苔滑者 難治”¹⁵⁾라고 하였다. 張仲景의 韓醫學의 舌診의 發展에 대한 주요 貢獻은 그가 《內經》의 舌診의 理論을 繼承하고 또한 自身の 臨床經驗을 根據로 하여 發展시키고 아울러 그 理論上 內容上으로 모두 더욱 充實히 하고 向上시켰다는 것이다. 仲景의 또하나의 貢獻은 그의 醫療經驗中에 이미 舌診을 辨證施治의 手段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舌診을 運用하여 病因을 살피고 病機를 辨別하고 治療原則을 確定하고 豫後와 轉歸를 判斷하는 것등을 하여 《內經》의 舌診理論과 經驗을 긴밀하게 結合하여 後世의 溫病學派들이 察舌하여 辨證論治하는 基礎를 만들었다. 仲景은 舌診을 論述하거나 臨床에서 舌診을 運用할 때에 또한 證을 버리고 “舌”을 取하거나 “舌”을 버리고 證을 취하는 것과 舌과 證을 同時에 參考하는 등으로 適切히 察舌하여 辨證施治하는 方法에 注意하였으므로 韓醫學의 舌診理論을 承前 啓後하는 중요한 役割을 하였다.

4. 華佗의 著書 및 顛顛經의 舌診

華佗(?-208年)는 또 이름을 桴라고도 하며 字는 元化로 中國 東漢末의 傑出한 外科醫師로 醫學上의 聲명이 대단히 高매하였고,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針灸科 등의 各科에 모두 精通하였으며,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疾病의 苦痛을 없애 주어 본래 神醫라는 稱號가 있었다. 舌診에 대하여 歷史的인 原因으로 인하여 그의 眞面目을 알 수가

11) 朴憲在譯註 完譯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1978 p.324.

12) 上揭書 p.126.

13) 姜鎮春 等編著 傷寒學 서울 一中社 1992 p.211.

14) 上揭書 p.178.

15) 上揭書 p.177.

없다. 歷史書의 記錄에 의하면 그의 著書의 一部分이 일찌기 曹操의 獄中에서 불살라졌고 또한 그 중 一部分은 그의 弟子에게 전해졌다는 말도 있다. 예를 들어 王叔和는 그의 《脈經》序中에서 “今撰集岐伯以來 逮于華佗 經論要訣 合爲十卷”이라는 말이 있다. 冊中에 또한 華佗의 “察聲色要訣”이 있는데 後世에 또한 다른 이가 그 이름을 假託하여 《華氏中藏經》, 《華佗神方》, 《青囊秘錄》 등의 書籍을 지었는데 그 중에 舌診이 실려있다. 《中藏經》의 “陽厥論第四”中에 “咽乾中焦 舌生瘡”이 있고, “陰厥論第五”에는 “肝中寒即兩臂痛不能舉 舌本燥”가 있고 “論臆虛實寒熱生死逆順脈證之法第二十三”에는 “又臆脹即舌下痛 口苦 太息也”가 있고 “論氣痺第三十四”에는 “氣痺者 …… 貫于舌則不能言”이 있고 “論骨痺第三十八”에는 또한 “骨痺者 …… 上衝心舌則爲不語”가 있다. 《華佗神方》中의 第4309-4313方이 모두 舌病을 治療하는 專門方이며 그 중에 第4,309方은 華佗治舌病專方이고 第4310方은 華佗治舌血神方이며 第4,311方은 華佗治舌斷神方이며 第4,312는 華佗治舌皮破碎神方이며 第4313은 華佗治舌脣口外神方 等等이다. 이는 모두 前人이 華佗의 이름을 假託하여 지은 것이거나 또는 華佗가 그 弟子에게 傳한 醫學經驗의 部分일 수도 있어 그 眞面目이라고는 여전히 首肯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인 考證이 必要하다.

宋人중에 不著撰人名姓의 筆寫로 전해지는 東漢時期의 衛訊이 지은 《顛顛經》은 韓醫學의 最古의 小兒科 專門書이기 때문에 舌診을 小兒科 系統에서 運用하기 시작한 先例가 된다는 것 以外에도 舌診의 內容方面에서도 《內經》, 《傷寒雜病論》 등에서 論述한 基礎위에서 새로운 記錄이 있다. 예를 들어 “病證篇”에 “舌上生瘡是心疳”이고, “疳疔證治論”에는 “行立不得 及鼻下常赤 清涕涎流不止 舌上生瘡 腦疳”등이 있는데 모두 疳證時에 舌上의 變化를 觀察한 最初의 記錄으로 後世에 雜病舌診 研究方面에서 引導적인 役割을 하였다¹⁶⁾.

III. 魏晉 및 隋唐時代의 舌診

이 시기의 舌診의 特點은 주로 《黃帝內經》과 《傷寒雜病論》의 舌診의 經驗을 계승하여 整理 발전시킨 것이다. 이 시기의 舌診의 內容을 담고

있는 主要서적으로는 皇甫謐의 《針灸甲乙經》, 西晉 王叔和의 《脈經》, 葛洪의 《肘後備急方》, 隨代 巢元方的 《諸病源候論》, 唐代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 王燾의 《外臺秘要》가 있으며 이당시에 티베트 醫師 元丹貢布등이 《四部醫典》이라는 티베트의학을 집대성한 醫書를 저작하였는데, 여기에도 舌診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魏晉時代에 별도로 舌診의 內容을 包含하는 醫書가 있는데 이는 皇甫謐의 《針灸甲乙經》이다. 《甲乙經》은 韓醫學 歷史에서 一代의 名著로서 그 冊이 비록 針灸에 대해 說明하고 있으나 또한 舌診의 內容도 있다. 예를 들어 《甲乙經十二卷》中에 “手足陽明脈動發口齒病第六”에 針灸를 利用하는 方法으로 舌緩 重舌 舌不能言 舌下腫 舌縱 口臭 등의 여러 종류의 病症의 數條가 기록되어 있으니¹⁷⁾ 이는 韓醫學의 舌診史上 針灸를 運用하여 舌症을 치료한 始初이다. 글중에 비록 鍼灸로 舌病을 治療하는 것이나 그는 실제로 韓醫學 舌診 研究에서 舌苔의 관찰로 부터 舌形態를 觀察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有益한 方法을 제시하였다.

晉隋時代에 韓醫學 舌診의 發展은 繼承과 發展의 段階에 進入하였다. 이 時期에 舌診의 研究에 대한 主要 貢獻은 王叔和가 代表的인 醫學家로서 扁鵲에서부터 晉代에 이르기까지의 舌診의 經驗을 收集하고 保存한 것이다. 그 中에 扁鵲의 몇가지 舌診理論은 곧 王叔和로 인하여 그가 編纂한 脈經中에 保存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舌診의 發展 歷史를 평가할 때 舌診의 研究에 대해 용감히 開拓하고 立論確說하여 貢獻을 세운 理論家도 높이 評價해야 하며 또한 韓醫學의 舌診學說을 保存하고 繼承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책을 編纂하고 引證하며 積極的으로 傳播한 사람들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西晉의 王叔和(256-316)는 그의 《脈經》中에 언급한 舌診의 內容이 비록 대부분이 《內經》, 《難經》과 扁鵲, 華佗, 張仲景 등과 有關한 著書를 모아놓은 것이지만 그는 中國 三國以前의 舌診 文獻을 保存하는데 確實히 큰 貢獻을 하였다. 그의 脈經은 비록 韓醫學의 脈學을 研究한 主要著書이지만 舌診方面의 研究 또한 確實히 그 중요한 史料의 價値가 있다. 王叔和는 韓醫學의 舌診을

16) 李乃民主編 中國舌診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1995 p.3.

17) 山東中醫學院校釋 針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p.1453-1460.

保存하고 傳播하는 데 크나큰 貢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舌診의 立論方面에서도 시로운 見解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熱病의 舌象을 觀察할 때에 《內經》과 仲景의 舌診에 비하여 發展이 있었다. 그의 “診百病死生訣篇”, “熱病生死期日證篇”, “熱病十逆死日證篇” 등의 篇中에서 “熱病七八日 …… 舌焦乾黑者死”¹⁸⁾ “熱病身面盡黃而腫 心熱口乾 舌卷 焦黃黑 …… 伏毒傷肺中脾者死”¹⁹⁾ “熱病腹脹便血 …… 汗出而喘 口乾舌焦 視不見人 七逆見 一旬死”²⁰⁾ 等等은 모두 《內經》 《傷寒》과 《金匱》에 나오지 않는 內容이다.

晉隋時代에 韓醫學 舌診의 發展에 貢獻한 사람으로 또한 葛洪과 巢元方이 있다. 葛洪(261-341)이 지은 《肘後備急方》에 舌診 內容이 十餘條가 있다. 예를 들어 卷二의 “治傷寒時氣溫方篇”에 “若病人齒無色 舌上白 或喜睡眠 憤憤不知痛痒處 或下痢 急治下部”²¹⁾라 하고, 卷七의 “治卒飲酒大醉諸病方篇”에 “連日飲酒 咽喉爛 舌上生瘡 搗大麻子一升 末黃柏二兩 以蜜爲丸服之”²²⁾ 等等의 見解가 있다. 巢元方の 《諸病源候論》(601년)은 韓醫學의 重要한 著書로서 巢氏는 諸病源候를 觀察할 때에 察舌하여 諸病의 根源을 살피는 것을 重視하였다. 全書는 모두 數十條의 舌診을 包含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舌體의 觀察은 《內經》, 《傷寒》, 《金匱》에 비하여 명확히 進歩하였으니 예를 들어 舌腫 舌強 舌爛 舌不收 舌縮 弄舌 舌脹 舌出血 舌上生瘡 重舌 等이 그것이다. 舌色(苔色을 포함)에 대해서 또한 많은 描寫를 하였으니 예를 들어 舌上白 舌上黃 舌上白黃 舌焦黑 舌赤 舌青 舌青黑 等等이다. 특히 注目할 것은 當時 巢氏가 舌下의 脈絡에 대해 이미 觀察하고 있었으니 예를 들어 卷十二의 “噤黃候”에 “身面發黃 舌下大脈起青黑色 舌噤強不能語 各爲噤黃也”²³⁾가 있다. 이는 韓醫學의 舌下靜脈의 診法에 대한 最初의 記錄이다. 巢氏는 《內經》, 《傷寒雜病論》과 《脈經》 等書中에서 察舌하는 經驗이외에 그의 臨床實踐의 總結이 그의 主要功績이며 그는 韓醫學 舌診의 發展歷史中에서 가장 먼저 舌診을 諸病의 根源을 觀察하는 證候의 하나로 삼아서 後人들이 舌診을 研究하는데 커다란 길을 開拓해 주었다.

唐代에는 中國의 封建社會制度和 科學文化의 發展과 繁榮에 따라 舌診의 研究와 臨床應用 또한 明確히 發展하였다. 唐代의 舌診에 관한 主要成

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孫思邈이 《千金方》中에서 제시한 것인데 舌象의 變化는 病이 臟腑에 있는 것에 屬한다는 理論으로 後世의 察舌하여 辨證하는 理論的 根據를 提供하였고 또 하나는 티벳醫學에 舌診記錄이 나타나기 始作했다는 것이다.

唐代의 著名한 醫家인 孫思邈(約581-682年?)은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 등의 冊을 著述하였는데 《千金方》은 三十卷으로 모두 232門이며 方論은 合하여 5300首가 되어 中國의 現存하는 醫學百科全書라고 말할 수 있다. 그 中에 舌과 關係된 記述은 唐以前의 歷代醫學經驗을 總結한 基礎위에서 “또한 스스로 一家를 이루어 不滅의 功績이 있다.” 《千金方》中에 專門的으로 《舌論》一章(卷第十四 小腸部)을 써 놓았는데 이는 舌診을 專門的으로 論述한 嚆矢로서 後世에 出現한 舌診專門書의 뿌리가 되었다. 同時에 반드시 言及해야 할 것은 《千金方》의 察舌하여 臟腑를 辨證할 때에 舌質을 살피므로써 主要方法을 삼았으니 이는 巢氏가 諸症源候를 살피는 때에 舌體의 變化를 살피는 것을 重視한 것보다 한층 더 進歩한 것이다. 《千金方》中에서 六淫病變을 살피는 때에 그는 또한 苔色을 辨別함으로써 識見을 삼아, 黑苔를 觀察했을 때 乾焦하여 黑한 것은 熱證에 屬하고 靑黑潤한 것은 寒證에 屬한다는 것을 區分하는 重要한 見解를 가장 먼저 提示하여 後世醫家의 舌診研究의 世界를 開拓하고 넓혀주었다. 《千金方》에서 成人의 察舌辨證의 記錄 以外에 小兒 舌診에 대해 자못 研究한 것이 있다. 《顛顛經》의 經驗의 基礎上에 많이 發揮하였는데 예를 들어 “玉衡”, “鵝口”, “羊癇病”, “重舌” 등등에서 바라보아도 確然한 뿐만 아니라 法 또한 據得한 것이니 後世에 이 方面에서의 舌診研究에 有益한 經驗을 提供하였다²⁴⁾.

唐代 醫書中에서 《千金方》 《千金翼方》이외에 王燾의 《外臺秘要》(752년)의 “舌論一首”中에

19) 上揭書 p.477.

20) 上揭書 p.480.

21) 葛洪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7.

22) 上揭書 p.145.

23) 南京中醫學院校釋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389.

24) 劉更生 等点校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pp.60-80.

18) 脈經校釋 上揭書 p.200.

서 더욱 舌과 사람이 먹는 五味와의 關係를 重視하여 提示하였으니 예를 들어 “若多食鹹 則舌脈凝而變色 多食苦 則皮薰而外毛落 多食辛 則舌筋急而枯乾 多食酸 則舌肉腴而脣揭 多食甘 則舌根痛以外髮落”²⁵⁾이라 하였다. 《青囊秘錄》에 또한 비슷한 관점이 있으니 韓醫學 舌診의 味覺方面에서의 研究를 하는데 有益한 引導作俑을 하기 始作하였다. 舌診理論上에서 모두 臟腑理論으로 舌上의 變化를 分析하여 왔다.

티벳민족의 의약은 일천년의 歷史를 지니면서 獨特한 理論 體系와 鮮明한 民族의 特色이 있다. 티벳醫學의 舌診은 漢醫에서 비롯하였는데 唐代 西紀 641-710년에 이르러 文成公主와 金城公主가 티벳으로 들어갈 때 醫藥衛生員을 데리고 醫學 著書를 가지고 가서 이때에 漢醫의 舌診學이 티벳醫學에 전파되게 되었다. 8世紀에 티벳醫學의 經典著書인 四部醫典에 中醫의 舌診을 記錄하면서부터 그 後 15-16世紀의 티벳醫學의 彩色掛圖 “唐卡”에 티벳醫學의 四診中에서 舌診彩色圖가 있게 되었으니 예를 들어 “龍”病舌의 舌은 붉고 乾燥하고 거칠며 “赤巴”病舌의 舌色은 淡黃하며 苔가 厚膩하며 “培根”病舌의 舌色은 淡白하고 濕潤한 等等이다. 그것의 出現은 비록 元代의 敕氏傷寒金鏡錄에 비하여 2世紀가 늦었지만 金鏡錄의 彩色圖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唐卡의 彩色舌診圖의 文獻이 韓醫學 舌診發展史中에서 분명히 珍貴한 資料가 된다. 唐代의 舌診 狀況을 綜合하면 이 時期에 實踐에서 理論에 걸쳐서 漢 晉 隋 時代에 비하여 進歩하였고 成果가 明確하다. 그러나 當時의 脈診의 發展과 서로 比較해 보면 또한 臨床醫學家의 注意를 끌기에는 부족하여 四診中에 여전히 比較적 덜 緊要한 補助的인 位置에 處하였고 특히 歷代로 數百年동안 여전히 舌診의 專門書가 出現하지는 못하였다²⁶⁾.

IV. 宋·金·元시대의 舌診

舌診은 宋·金·元시대에 접어들면서 臨床各科에서 廣範圍하게 응용되었으며 아울러 이 시기에 杜本(字原父 號清碧先生)에 의해 최초의 舌診專門書인 《傷寒舌診》(일명《敕氏傷寒金鏡錄》)이라고도 한다.)이 刊行되었다. 이 책의 출판과 더불어 舌診

의 연구는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進入하게 되었다. 杜清碧의 36舌圖는 舌診發達史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역할을 하였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 일반 醫書에 나타난 舌診

宋·金·元시대는 中國民族과 異民族과의 투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대이며 전반적인 사회과학문화의 진보와 더불어 중국의학도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시기에 출현한 所謂“新學肇興”, “金元四大家”의 學術爭鳴은 의학계의 새로운 理論發達을 촉진하였으며 各家들이 分분히 경쟁立說함에 따라 舌診學도 두각을 나타내어 중국의 舌診발전사중에서 比較적 뚜렷한 단계로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唐以前의 “舌診”의 연구는 《內經》의 이론기초위에서 진일보하여 축적하고 실천하며 옛것을 계승하는 단계였다. 반면 宋·金·元시기는 바로 前人의 經驗의 기초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理論에 있어서 탐구와 발전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시기의 舌診발전의 주요공헌은 《傷寒論》의 舌診에 대하여 정리와 연구를 진행한 것이며 임상각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을 한 것이다. 중국의 舌診발전사중의 최초의 舌診學專門著作인 《敕氏傷寒金鏡錄》이 바로 이 시기에 출판되었다. 그밖에 또 陳無鐸의 舌覺診法인 味覺變異와 “臟氣偏勝”相關理論의 출현도 역시 이 시기의 중요한 발전중의 하나이다. 唐나라 以前에 각시대의 醫家들은 《傷寒論》의 舌診에 대하여 비록 모두 중시하여 그들의 著作에 인용하고 기록하여 後世에 전달하였지만 결코 이를 하나의 전문적인 문제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없었다. 宋代에 이르러 학술의 진보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이 《傷寒論》의 舌診에 대하여 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중 朱肱의 《類證活人書》(1108年), 成無己의 《注解傷寒論》, 《傷寒明理論》(1126~1144), 趙佶敕撰의 《聖濟總錄》(1117), 陳言의 《三因極一病證方論》(1174), 劉完素의 《素問玄機原病式》(1186), 王執中의 《針灸資生經》(1220), 張從正的 《儒門事親》(1228), 陳自明的 《婦人大全良方》(1237), 施發堂의 《察病指南》(1240), 李杲의 《內外傷辨》(1247), 陳自明的 《外科精要》(1263), 倪維德的 《元機啓微》(1358) 등

25)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614.

26) 中國舌診大全 p.4.

몇십부의 醫學전문저작중에 모두 舌診의 記載가 있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成無己가 《傷寒明理論》중에서 쓴 “舌上苔”의 전문기록이다. 이는 中國舌診學史중에서 최초의 舌診論著이며 이후의 舌診學專門著作의 출판에 根本을 제공하였다. “舌上苔”의 전문논술중에서 우선 먼저 말한 것은 건강한 사람의 舌象인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것을 알고 나서 變化된 것을 알게 한 것이다. 그리고 늘 볼수있는 病理舌象 및 그 형성원리, 進退變化의 기전을 논술하였으며 끝으로 《傷寒論》중에 분산되고 흩어진 舌診에 대하여 歸納分析하였고 아울러 기타 문헌을 인용하여 보충을 하였다. 全文은 비록 5백여자에 불과하지만 문장이 정밀하면서도 內容이 대단히 깊다. 이 논술은 仲景의 舌診을 계발한 매우 훌륭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傷寒明理論 第22의 舌上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傷寒舌上苔를 何以明之오 舌者는 心之官이오 法應南方火니 本紅而澤이라. 傷寒三四日已후에 舌上有膜하고 白滑如苔하며 甚者或燥, 或澁, 或黃, 或黑, 是數者는 熱氣淺深之謂也라. 邪氣在表者는 舌上即無苔나 及邪氣傳裏하야 津液結搏하면 則舌上生苔也라

或在寒邪初傳에 未全成熟하며 或在半表하며 或在半里하며 或邪氣客于胸中者는 皆舌上苔白而滑也라 經에 曰 舌上如苔者는 以丹田有熱하며 胸中有寒이니 邪初傳入里者也라 陽明病에 脅下硬滿하며 不大便而嘔하며 舌上白苔者는 可與小柴胡湯이라하니 是邪氣在半表半里者也라 陽明病에 若下之하야 則胃中空虛하며 客氣動膈하야 心中懊憹하며 舌上苔者는 梔子豉湯으로 主之하라하니 是邪氣客于胸中者也라 臟結를 宜若可下나 舌上苔滑者는 則云不可攻也라하니 是邪未全成熟하야 猶帶表寒故也라

及其邪傳爲熱하면 則舌上之苔 不滑而澁也라 經에 曰 傷寒七八日不解하야 熱結在里하야 表里俱熱하야 時時惡風하며 大渴하며 舌上乾燥而煩하며 欲飲水數升者는 白虎加人參湯으로 主之하라하니 是熱耗津液하야 而滑者已乾也라 若熱聚于胃하면 則舌爲之黃하니 是熱已深也라 《金匱要略》에 曰 舌黃未下者는 下之면 黃自去라 하니라.

若舌上色黑者는 又爲熱之極也라 《黃帝針經》에 曰 熱病에 口乾舌黑者는 死라하니 以心爲君主之官으로 開竅于舌하고 黑爲腎色으로 見于心部라 心者는 火오 腎者는 水니 邪熱已極하야 鬼賊相刑하니

故知必死라 觀其口舌하면 亦可見其逆順也라²⁷⁾

宋金元시기는 臨床醫學의 分科가 이미 뚜렷하였으며 따라서 허다한 專門醫師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전문의사들은 모두 舌診學을 각 專門醫療實踐에 결합하여 많은 고귀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것이 후세에 舌診이 각 專科에서의 응용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錢乙은 《小兒藥證直訣》에서 《顛顛經》의 辨舌經驗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는데 이로 인해 이 책은 後世에 小兒科 辨舌의 소중한 참고서가 되었다.

婦科方面에서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은 내용이 精要하고 특히 舌下脈色의 관찰에 대해서 자세한 立論이 있다. 陳自明의 外科방면의 저작으로는 《外科精要》가 있는데 外證察舌을 위하여 先例를 열었다. 안과방면에서 元倪維德의 《元機啓微》가 있는데, 이 책은 안과병의 진단치료에서 舌苔를 관찰하여 辨證施治를 운용하는데 자못 중요한 길을 개척하였다. 내과방면에서는 學諭유파의 서로 다름에 따라 舌診방면에서도 각기 자신의 심득한 내용들이 있다. 그 주요한 인물로는 劉完素(1110~?), 張子和(1156~1228), 李杲(1180~1251), 朱震亨(1281~1358)들이 있으며 이들을 金元四大家라고 칭한다. 그들의 《素問玄機原病式》, 《儒門事親》,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蘭室秘藏》, 《格致餘論》, 《局方發揮》등 저작중에는 모두 察舌辨證의 각기 다른 경험과 견해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舌診의 발전을 위하여 承先啓后의 작용을 하였다.

2. 敖氏傷寒金鏡錄

公元1341년경에 중국에서 최초의 舌診專門著作인 《敖氏傷寒金鏡錄》이 출판되었는데 이 舌診研究專門著作의 출판은 舌診研究의 과정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進入하였음을 나타낸다.

《敖氏傷寒金鏡錄》은 敖氏로부터 시작되지만 지금까지 敖氏의 이름 생애 및 거주지에 대하여 고찰할 문헌이 없다. 《敖氏傷寒金鏡錄》의 原書에는 오직 舌苔圖譜가 12개였는데 후에 杜清碧이 자기본인의 臨床經驗을 정리하여 24개 圖를 증가하여 모두 36개 舌圖를 만들었으며 그 圖 아래에 治則과 方藥을 열거하여 더욱더 완벽하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內經》과 《傷寒雜病論》은 中

27)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杏林出版社 pp.569-570.

國舌診學의 起源이고 《千金方》의 “舌論”과 《明理論》의 “舌上苔”는 舌診學의 발달과정이라고 볼 때 《金鏡錄》은 웅당 중국 舌診學의 전문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金鏡錄》은 과거의 학술을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 독창적인 작품이다. 《金鏡錄》은 金元時期에 중의학 “新學肇興”, “競相立說”의 學術의인 분위기아래에서 만들어진 創作性 의학적저작이다. 그의 “專以舌色視病”, “辨舌用藥”의 학술이론은 당시 金元四大家의 학술이론의 創建과 서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것이다.

《金鏡錄》은 중국의 舌診學의 기초를 닦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舌診學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동시에 또 후세의 온병학설의 형성과 성장에 공헌을 하였다.

《金鏡錄》은 辨舌用藥法則에 있어서 멀리는 張仲景을 근본삼고 가까이는 劉河間을 본받아 계통적인 “辨舌用藥”體系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舌診을 응용하여 疾病을 판단하고 預後를 판단하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敖氏傷寒金鏡錄》의 학술적인 업적은 대단히 뛰어났지만 그것이 세상에 나온 뒤에 秘而不傳하였으므로 그리 널리 流傳되지 아니하여 당시에는 그 영향이 크지는 못하였었다. 그러나 明代의 薛己가 1529년에 지은 《薛氏醫案》속에 收載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薛己는 이 冊을 입수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正德戊辰(1508년)歲에 어떤사람이 舌色을 구별하여 약을 쓰는데 효과가 뛰어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그것을 물어보니 그가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南雍에서 《敖氏傷寒金鏡錄》을 구했는데 돌아와 살펴보니 그 사람의 辨舌用藥之妙가 모두 이 冊에서 비롯함을 알게 되었다.” 薛己의 기록에 의하면 본래 元代의 敖氏는 舌診에 대한 연구를 하여 임상경험과 역대문헌을 참고하여 點點金과 金鏡錄이라는 두 冊을 지었는데 金鏡錄은 주로 傷寒의 舌診을 論하면서 12개의 舌圖를 만들었다고 한다. 明嘉靖時에 南京太醫院의 院判長이던 薛己는 《金鏡錄》과 《點點金》의 두 冊을 보고 훌륭하다고 여겨 官舍에서 刊行할때 五色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點點金은 傷寒과 相合하지 않는다고 여겨 金鏡錄만을 重視하게 되었고 五色으로 그린 그림이 오래되면 色이 변할 것을 염려하여 다시 그림위에 注를 가하고 《外傷金鏡錄》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고 하였다²⁸⁾.

薛己의 序文과 36개의 條目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夫人之受病은 傷寒爲甚이요 傷寒之治는 仲景爲詳을 人皆知之로대 而未必能行之者는 豈非以其法浩繁하야 有難卒貫者乎아 舊有敖氏金鏡錄一篇하니 專以舌色視病이라 既圖其狀하고 復著其情而后別其方藥하니 開卷昭然하며 一覽具在라 雖不期乎仲景之書나 而自悉合乎仲景之道하니 可謂深而通하여 約而要者矣라 予昔承乏하야 在留都할새 嘗刻之太醫官하니 舍本은 皆繪以五彩나 恐其久而色渝하야 因致謬誤라 乃分注其色于上하야 使人得以意會焉하고 遂命工登梓하야 名之曰外傷金鏡錄하니 蓋寒之所傷은 本自外至나 見傷于內면 外有徵焉이라 所以然者는 人之一身은 皆受生于天하니 心名天君이라 故獨爲此身之主오 舌乃心之苗니 凡身之病이 豈有不見于此者리오 尙何內外之間特悉人之不化耳라”²⁹⁾

- ①舌見白苔滑者
- ②舌見紅色
- ③舌見純紅, 內有黑形如小舌者.
- ④舌見紅色, 而有小黑黑色者.
- ⑤舌見淡紅, 中有大紅星者.
- ⑥舌見紅色, 尖見青黑者.
- ⑦舌見淡紅色, 而中有一紅暈, 沿皆純黑.
- ⑧舌見紅色, 更有裂紋如人字形者.
- ⑨舌見紅色, 更有紅點如蟲蝕之狀者.
- ⑩舌見紅色, 內有乾硬黑色, 形如小長舌有刺者.
- ⑪舌見紅色, 內有黑紋者.
- ⑫舌見黑色.
- ⑬舌見尖白根黃.
- ⑭舌見弦白心黑.
- ⑮舌尖白苔二分, 根黑一分.
- ⑯舌見白苔中有黑小點亂生者.
- ⑰舌見如灰色中間更有黑暈兩條.
- ⑱舌見微黃色者.
- ⑲舌中見白苔, 外則微黃者.
- ⑳舌見微黃色者.
- ㉑舌見黃色者.
- ㉒舌左白苔而自汗者.
- ㉓舌右白苔滑者.
- ㉔舌左見白苔滑.

28) 劉飛白 舌診指南 台北 五洲出版社 1984 p.6.

29) 邱駿聲 中國舌診學 台北 五洲出版社 pp.3-4.

- ⑮舌見四圍白而中黃者.
- ⑯舌見黃而有小黑點者.
- ⑰舌見黃而生.
- ⑱舌見黃而生.
- ⑲舌見四邊微紅, 中央灰黑色者.
- ⑳舌見黃而黑點亂生者.
- ㉑舌見黃中黑至尖者.
- ㉒舌見外淡紅心淡黑者.
- ㉓舌見灰色尖黃.
- ㉔舌見灰黑色而有黑紋者.
- ㉕舌根微黑尖黃脈滑者.
- ㉖舌根微黑尖黃, 隱見或有一紋者.³⁰⁾

이 冊이 出刊된 이후 그 영향이 매우 컸으므로 후인들이 평가한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陳楠과 王琦(盧復의 說在中)의 두 說만 소개해 보고자 한다.

陳楠云“敖氏抱獨見之明하여 著金鏡錄하니 只以舌診이오 不以脈辨이나 其法이 淺而易知하며 試而輒效하니 誠千載不偶之秘書也라 惟黑舌之證은 稍有未盡하니 如黑之黑而紫하며 黑而濕潤하며 黑而濡滑하며 黑而柔軟은 皆寒證也오 黑而焦하며 黑而腫하며 黑而乾澀하며 黑而捲縮하며 黑而堅硬하며 芒刺而折裂은 皆熱證也라 學者當推類以盡其餘면 則庶幾乎 ㄴ저”³¹⁾

“傷寒書는 莫先于張仲景하고 亦莫詳于張仲景이나 其言舌上白苔者五條오 未嘗及黃, 黑, 灰, 白, 純紅諸色이라 元之敖氏가 始以十二舌로 作圖驗證하고 杜氏增以二十四舌이오 明薛立齋極稱之謂其與仲景鈴法相協하니 依此用藥多效하니 可以補仲景之所未及이라 其後申斗垣이 輯觀舌心法하여 推廣至一百三十七圖하고 長洲 張誕先이 刪其重複하고 汰其無與于傷寒者하여 定爲一百二十圖하여 作傷寒舌鑒이라 余嘗匯而觀之컨대 不簡不支는 取杜氏三十六圖면 足矣니 太加分晰하면 恐有毫釐千里之差하여 反致左而不驗矣리니 奚必以多多爲善耶리오 廬不遠先生이 謂傷寒에 可以視舌識病이던 則風暑燥濕이 恐亦有定法이라하니 斯言也誠하니 足爲三隅之反然이라 傷寒雜證은 同異不齊하니 若膠柱鼓瑟而不善會其意하여 見以視傷寒之舌色으로 推以驗雜證之舌色하면 鮮有不誤니 是又不可不知也니라 乾隆甲申(1764年)七月二十六日處暑에 錢塘王琦는 跋하노라.”³²⁾

1950년대에 紹興의 史介生은 《史氏生訂敖氏

傷寒金鏡錄》을 지었다 그는 《薛氏醫案》本을 바탕으로 36舌의 제목을 순서대로 달고 辨舌用藥에 대해 “介按”이라는 按語를 加하여 역대 의서의 내용과 자신의 經驗을 소개하고 있는데 金鏡錄의 舌診을 공부하고 운용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V. 明代의 舌診

明代에 이르러 舌診은 臨床의 各科중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일반 醫書중에서도 거의 모두 舌診의 내용이 言及되어 있다. 薛己의 《薛氏醫案》, 王肯堂의 《證治準繩》, 張介賓의 《景岳全書》 등의 서적은 《黃帝內經》, 《傷寒雜病論》, 《敖氏傷寒金鏡錄》 이래의 舌診의 經驗을 계승, 발전시켜 舌診의 발전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明代에 간행된 서적으로서 舌診의 內容을 담고 있는 중요한 몇가지 서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陶華가 지은 《醫家秘本傷寒大全》, 《傷寒瑣言》, 《傷寒全生集》, 《傷寒明理續論》에는 모두 舌診에 관한 內容이 기록되었다. 이 중 《傷寒瑣言》의 舌診은 《敖氏傷寒金鏡錄》의 舌診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의 經驗을 밝힌 부분은 비록 적지만 承先啓後의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傷寒明理續論》은 陶華가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의 체제와 內容을 참고하여 보충 수정한 것으로 대략 1445년경에 완성되었다. 이 책에서의 舌診의 內容은 기본적으로 成氏를 인용하고 있지만 心得한 內容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

薛氏는 《敖氏傷寒金鏡錄》을 기록하여 後世에 전하면서 자신의 經驗을 덧붙여 기록하여 舌診의 內容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薛氏醫案》속에 “舌症”, “治驗”, “驗證舌法” 등篇을 두어 舌과 五臟의 관계 등을 說明하고 있는데 例하면 “口舌腫痛……爲中氣虛熱 眼如烟觸 體倦少食 或午後益甚 爲陰血虛熱 若咽痛舌瘡 口乾足熱 日晡益甚 爲腎經虛火”³³⁾ 등등의 內容이다. 이것들은 모두 內容이 자못 상세한데 그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기

31) 邱駿聲 上揭書 pp.6-7.

32) 中國舌診大全 p.33.

33) 薛己 薛氏醫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389.

30) 中國舌診大全 pp.53-55.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薛己는 기타 口齒類要, 內科摘要, 保嬰撮要(薛鎧撰 薛己增補) 등의 서적에서도 舌病과 관련된 다수의 醫案을 기록하고 있다.

徐春甫는 1556년 《古今醫統大全》을 편집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도 舌病의 治療와 舌診의 內容이 풍부하게 실려있다. 그는 舌病의 治療에 있어 內經의 理論 및 前人의 治案,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다수 기록하였으며 杜本의 三十六般辨視舌色法과 三十六舌法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³⁴⁾.

1602年 王肯堂은 《證治準繩》을 지었는데 內容속에는 舌診에 관한 기록이 풍부하고 수집한 內容이 광범위하며 小兒의 諸病 및 雜症辨舌에 대해서 깊이 체험한 사실이 실려있다. 雜病證治準繩의 舌條에는 舌의 生理病理에 대한 內容이 자세히 실려있는데 書論이 분명하여 좋은 참고가 되며 傷寒證治準繩에는 杜清碧驗證舌法이 36圖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³⁵⁾.

1624年 張介賓은 《景岳全書》를 지었는데 이 책속에는 “舌色辨”(傷寒典十八) 등의 專篇이 있어 舌色을 중심으로 辨證論治하고 있는데 內容이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景岳은 처음으로 ‘舌神’의 說을 제기하였다³⁶⁾.

이외에도 李梴의 《醫學入門》, 孫一奎의 《赤水玄珠》, 龔信的 《古今醫鑑》, 龔廷賢의 《萬病回春》 등에도 舌診과 관련된 전문적인 內容이 기술되어 있다.

舌診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학파로는 溫病學派가 있다. 明末淸初의 溫病學派인 吳有性是 1642년 《溫疫論》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脈을 위주하던 진단방법에서 舌診을 응용하여 溫病을 진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瘟病察舌”의 단서를 열었다. 그 중 “白苔如積粉”은 溫熱疫邪의 診斷特徵이며 邪伏募原한 標志로써 溫疫病에 下法을 사용하는 舌象의 특징이 되므로 溫病은 舌의 診斷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명대에 나온 舌診전 문서로는 16세기 말엽에 申斗垣이 지은 《傷寒觀舌心法》이 있다. 이 책은 그 이전까지의 舌診의 경험을 총결하여 杜清碧의 36舌圖를 演釋하여 137개의 舌圖를 그려 內容이 風行하고 醫論이 精辟하며 다년간의 臨床經驗을 종합한 일대의 名著이지만 너무 活繁하여 활용하기에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여기서 한가지 言及하고 지나갈 內容이 있는데 이 時氣의 中國의 舌診에 관한 內容은 조선, 일본, 및 구라파의 여러나라에 전파되어 국제적인 공헌을 하였다. 許浚이 이은 《東醫寶鑑》의 口舌條에는 《醫學入門》의 內容을 주로 인용하고 있으며 舌上生苔에서는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의 說을 인용하고 있다. 일본인 丹波元胤이 1831년 지은 醫籍考속에도 《敖氏傷寒金鏡錄》과 《傷寒觀舌心法》 등의 篇目이 기재되어 있다.

폴란드의 선교사인 Michael Boym은 1671년 舌診에 관한 문헌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의 나라에서 출판하였는데 이로부터 中國의 舌診에 관한 內容이 西歐의 여러나라에게 流傳하게 되었다.

VI. 結 論

中國舌診의 역사에 대하여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中國에서 舌診이 시작한 시기는 西周시기가이고 전국시대에 이르러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이당시 舌診을 응용한 대표적인 의가는 扁鵲이라고 사료된다.
2. 黃帝內經에는 설에 대하여 60여조의 內容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설의 생리, 病理, 진단에 관련된 內容뿐만이 아니라 舌體의 형태, 舌苔, 瘀후 등에 관한 기록도 초보적으로 기록되어 이후 舌診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所依經典이 되었다.
3. 傷寒論에는 24종의 舌診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 舌診을 辨證論治에 중요하게 응용하였으며 舌苔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4. 이후 華佗의 저서 顛顛經, 甲乙經, 脈經, 肘後備急方, 諸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등의 서적에 舌診에 관한 內容을 기술하고 있지만 발전이 비교적 완만하였다.
5. 宋金元代에 이르러 舌診은 임상각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으며 이 시기에 杜本은 舌診전문서인 《傷寒金鏡錄》을 출간하여 이후 舌診발달사

35) 王肯堂 證治準繩(三) 傷寒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p.267-273.

36)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p.122.

34)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698-701.

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6. 明代에 이르러 舌診은 임상각과에 널리 보급되어 일반의서중에 거의 모두 舌診의 內容을 言及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으며 대표적인 舌診전문서로는 申斗垣이 지은 《傷寒觀舌心法》이 있다.

參 考 文 獻

1. 葛洪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 姜鐵春 等編著 傷寒學 서울 一中社 1992
3.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4. 南京中醫學院校釋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鄧鐵濤主編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6. 馬建中編著 中國診斷學 台北 正中書局 1987
7. 朴憲在譯註 完譯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1978
8.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92 第九冊
9. 山東中醫學院校釋 針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10.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1969
11.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2. 薛己 薛氏醫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3. 孫詒讓撰 周禮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7 第二冊
14. 嚴世蓀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影印 1993
15. 王肯堂 證治準繩(三) 傷寒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6.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7. 王淑和 脈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8. 劉更生 等點校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19. 劉飛白 舌診指南 台北 五洲出版社 1984
20. 李乃民主編 中國舌診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1995
21. 李鳳教編著 韓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6
22.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